

민주, 더 강해진 '친명 체제' ... 호남, 선출직 지도부 또 무산

이재명 대표 압도적 지지·친명 인사 지도부 대거 입성 전당대회 국민 관심 못 끌어 ... '호남정치 복원' 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제2기 이재명호'의 출범을 알렸다.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속에서 당 대표에 재선임되면서 대선 가도를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됐고, 함께 구성된 22대 국회 첫 민주당 지도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게 된다.

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전혀 컨벤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친이재명' 중심의 지도부 입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의 '뒷발'이라고 불리는 광주·전남은 또 한 번 선출직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제2기 이재명호 출범-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친이재명'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이재명 신임 대표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따라 민주당 대권 전선이 다양화하고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원의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이 대표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과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정치를 이어가는 '친명팔이'를 지적했지만 당원의 반발도 거셌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도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지는 현실을 질타했지만 당원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 대표와의 친분만을 과시하면서 표발을 다지는데 비쳤다.

이에 따라 일부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큰 울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 의사결정 구조가 '만장일치'로 규정돼 있지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의 경우, 당 대표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독점 구조는 전당대회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자책골에 가까울 정도로 후보간 설전을 벌이며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호남 정치는 다시 변방으로-광주·전남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 때 반등에 성공했던 민행배(광주 광산구) 국회의원은 호남 출항민이 많은 수도권에서의 반등을 기대했지만, 연이은 부진 탓에 최고위원에 입성하지 못했다. 민 의원을 포함해 21대 이후 호남 국회의원의 선출직 지도부 도전은 4차례 이뤄졌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민주당 전체 당원 중 33.3%를 광주·전남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 당선이 유리하고, 수도권 표심에 '호남의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은 이번에도 어긋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결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2명)에 광주·전남지역을 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이 호남 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준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 출신의 한준호(고양을)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으로 선택을 받았고, 대선을 고려했을 때 열세 지역인 영남과 여성·청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광주·전남이 변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내 가장 큰 계파 중 하나였던 호남이 분열되면서 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한 명 만들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호남이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도 호남 정치 약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나 공천해도 본선에서 당선된다'는 공식 탓에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이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

민주당 중앙당 한 관계자는 "호남의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져 조직을 보완할 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호남의 뜻'을 체계적으로 표로 연결하는 구심점과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것이 증명된 전당대회"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15주기 ... 여야 모두 '행동하는 양심' 추모

정치권 인사 등 대거 참석 생전의 업적·리더십 기려

정치권은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추모식에서 'DJ 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김원기·임재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홍철호 대통령 실 정무수석 등도 참석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후보도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추모식에 들렀고, 노재현·김현철·노건호 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과 리더십을 한목소리로 기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대통령은 독재에 맞서 싸울 때도, IMF 국난을 헤쳐 나갈 때도 언제나 국민을 믿고 국민을 섬기셨다"며 "대한민국과 한반

도에 새로운 길을 연 담대한 리더십,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관계가 나날이 대결로 치닫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지금,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2024년 어떤 정치인보다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등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상기하며 "이 말씀들만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굳건히 세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며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민주주의의 완성,

민생경제의 회생,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DJ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발전을 다짐했다. 강 시장은 "김대중이라는 큰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린다"며 "대통령께서 '21세기엔 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낌없이 문화예산을 지원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K-컬처의 나라가 됐다. 광주를 문화예술과 AI를 결합한 도시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과 세계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대통령의 화합과 상생, 통합과 공존의 정신을 다리 삼아 도민과 함께 이 위기의 강을 건너겠다"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대통령님의 탁월한 통찰과 혜안을 본받아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식을 마치고 김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하고 분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안보·평화에 꼭 필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한 것임을 그동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을 기념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상담문의 · 010-6648-0725